

보육사 해외연수 선심행정 논란

남구청, 43명 예산 지원 베트남 대부분 관광지 방문 적절성 시비

광주시 남구가 1500만원의 예산을 보육시설 종사자들의 관광성 해외연수 비용으로 보조해 선심성 지원이라는 지적이다.

6일 광주시 남구에 따르면 남구지역 국·공립 및 사립보육시설 원장과 교사 등 43명은 이날 베트남으로 해외연수를 떠났다. 연수는 오는 10일까지 3박5일간 치러진다.

하지만 이번 연수 일정 대부분이 베트남의 유명 관광지 방문과 케이블카 탑승, 유적지 답사 등 관광성이 짙게 꾸러져 있는데도 남구가 보조금을 지원한 것으로 확인돼 적절성 논란이 일고 있다.

이번 베트남 연수 계획서에 따르

면 참가자들은 출발·도착일을 제외한 3일 동안 하노이와 하롱베이 소재 유치원 등 보육시설 3곳을 방문하게 된다.

반면 둘째날 ▲하노이 유적지 방문 ▲엔터 사원 케이블카 탑승, 셋째날 ▲하롱베이 유람선 탑승 ▲하롱베이 동굴 견학 ▲전신 마사지, 넷째날 ▲하노이 국립박물관 견학 ▲시클로 탑승 ▲수상 인형극 관람 등 일종의 상당 부분이 관광으로 채워져 있다.

이 때문에 이번 해외 연수에 대한 남구의 지원을 놓고 지방자치단체(장)의 부적절한 금전 제공 등을 규제하는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다.

실제로 김효겸 전 서울시 관악구청장은 지난 2008년 '동 통폐합 직능단체 워크숍'을 개최하면서 업무추진비로 주민들에게 52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했다가 2009년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아 구청장직에서 물러났다.

당시 서울교법은 "워크숍이 지자체 통폐합에 대한 강의 보다 관광과 식사 위주여서 금품 등 편의제공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남구는 "공익이나 시책에 도움이 되는 사업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는 조례를 들어 "보조금 지급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남구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일정만 놓고 보자면 이번 연수가 다소 부적절해 보이는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김호기자 kimho@kwangju.co.kr



6일 오후 광주시 북구 주교좌 임동성당에서 천주교 광주대교구 보좌주교에 임명된 옥헌진 시몬 주교가 서품을 받은 후 제단에 올라 기도를 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올 충장로 축제 때 직장인밴드 경연대회

음악에 대한 열정과 끼를 마음껏 뽐내는 '직장인 밴드 경연대회'가 충장축제 기간 중에 열린다.

광주시 동구와 충장축제추진위원회는 제8회 추억의 7080 충장축제 기간 중에 열리는 '전국 직장인 밴드 추억의 음악경연대회' 참가자를 오는 8월12일까지 모집한다고 6일 밝혔다.

충장축제추진위원회는 이번 대회를 통해 새로운 문화트렌드로 자리잡고 있는 직장인 밴드의 음악을 시민과 함께 즐기는 한편 대회참가자들에게 길거리축제로 새롭게 각광받고 있는 충장축제를 널리 홍보하는 데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9월 28일부터 10월 1일까지 4일 동안 열리는 예선심사에는 신청팀 모두에게 무대 공연의 기회가 주어지며, 예선을 통과한 8개 팀은 10월 2일 오후 5시부터 충장로 5가 옛 조흥은행 무대에서 최종 결선을 치른다.

대상팀에게는 상금 300만원과 트로피, 금상탑에는 100만원 등 본선진출팀 8개팀 모두에게 총 530만원의 상금과 본상이 수여된다. 다만 다른 직장인 밴드와 중복 참여하거나 음악저작권협회 및 한국예술포럼협회에 등록된 기성가수로 확인시 수상이 취소된다. 접수는 동구청 3층 축제추진위원회 방문 접수 또는 이메일(heesull@hanmail.net) 팩스(062-608-2248)로도 가능하다. /양수현기자 yang@kwangju.co.kr

오늘 날씨 **해돋이 05시 24분** **해질녘 19시 50분** **달돋이 11시 36분** **달지기 23시 25분**

전국 날씨

남해안 지방은 새벽한때 비가 내리겠다.

광주	흐림	22/28°C
목포	흐림	22/27°C
여수	새벽한때비	21/25°C
나주	흐림	22/28°C
완도	새벽한때비	21/27°C
구례	흐림	22/29°C
강진	새벽한때비	21/28°C
해남	새벽한때비	22/28°C
장흥	새벽한때비	22/28°C
순천	흐림	22/28°C
영광	흐림	22/27°C
진도	새벽한때비	22/28°C
전주	밤부터비	22/28°C
군산	밤부터비	22/27°C
남원	밤부터비	22/27°C
옥산도	흐림	20/25°C

〈오전〉 바다

종항	파고	지의선지수	식중독지수	블랙지수
서해 남부 앞바다	남~남서 1.0~2.0m	보통	경고	높음
남해 서부 앞바다	남~남서 1.5~2.5m	보통	경고	높음

〈오후〉 바다

종항	파고	밀물	썰물
서해 남부 앞바다	남~남서 1.0~2.0m	목포 06:20	11:36
남해 서부 앞바다	남~남서 1.5~2.5m	18:50	23:54
남해 서부 앞바다	남~남서 1.5~2.5m	여수 00:53	07:00
남해 서부 앞바다	남~남서 1.5~2.5m	13:24	19:23

◇주간날씨 **기상내선전화: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짜	8(금)	9(토)	10(일)	11(월)	12(화)	13(수)
날씨						
최저/최고	23/27	22/28	22/29	22/28	22/30	22/29

감사원, 대학 30곳 등록금 실태 조사

감사원은 7일 전국 국·공·사립 대학 30곳을 표본으로 대학 교육 재정 운용 실태에 대한 예비조사에 착수한다고 6일 밝혔다.

감사는 대학 재정 운용과 부실대학 관리에 중점을 두고 이뤄지며, 교육과학기술부와 합동으로 감사인력 205명을 투입, 대학 30곳과 교과부에 대해 오는 27일까지 15일간 예비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감사원은 각 대학의 재정 분석, 수입·지출 행태를 점검해 대학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경영·학사관리 부실대학의 운영실태를 점검해 정부의 부실대학 관리 정책이 내실있게 추진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이번 예비조사 결과와 전체 대학에 대한 종합적인 서면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내달 중 300명의 감사인력을 투입, 본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감사원은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예비조사 대학 30곳 중 15곳은 재정 건전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거나 최근 등록금 인상률이 높아 원인 분석이 필요한 대학으로 선정됐다. /연환뉴스

“황혼의 만남으로 황홀한 사랑 이루세요”

남구 프라도호텔서 60세 이상 독거노인 ‘황혼미팅’

“황혼의 만남으로 황홀한 사랑을 이루세요.”

60세 이상 홀로된 노인을 대상으로 ‘황혼미팅’이 열린다.

인구보건복지협회(회장 김영순)는 보건복지부 지원으로 오는 8월 오후 2시부터 3시간 동안 광주 남구 백운동 프라도호텔에서 황혼미팅을 갖는다. 주최측은 이 행사를 위해 7일 오전까지 선착순 50명을 신청받았다고 6일 밝혔다.

행사는 50명의 남녀 참가자들이 레크리에이션 강사의 진행에 따라 파트너를 바꿔가며 1대1 미팅을 하는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지난해 인구협회 노인 성상담실에 접수된 노인의 성 고민 사례 중 이성교제의 욕구가 전체 상담(2515건) 중 294건(11.7%)을 차지했다.

문의 062-670-4020(인구보건복지협회 광주·전남지회). /양수현기자 yang@kwangju.co.kr

광주 장학사 시험 객관성 우려

‘교육학’ 폐지... 기획능력·실무 평가키로

광주시교육청은 6일 중등 교육전문직(장학사) 공개 선별에서 기획능력 평가, 교직실무 평가 등 항목을 신설하는 등 전형 방법을 크게 변경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전까지 주된 전형 요소였던 객관적인 정량(定量)적 평가를 축소하고 주관적 성격이 강한 기획능력 평가 등이 크게 반영키로 해 평가의 객관성 확보가 관건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번 개선안의 골자는 교육학의 전이론적인 이론과 실체가 담긴 교육학 이론 시험을 폐지하는 대신 학습·생활 지도 등을 내용으로 한 교직 실무 평가(서술형)로 바꾼 것이다. 기획능력 평가는 시책과제에 대한 수행능력을 점검하는 내용으로 진행된다.

수업평가는 수업지도안 작성과 심사위원 질의, 응답, 요구에 따른 실현 방식으로 바뀐다.

그러나 심사위원들의 주관적 판단

에 따라 당락이 결정되는 정성적 평가가 강조됨으로써 자칫 ‘내 사담 챙기기’가 될 우려도 적지 않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개선안은 현장에서 노력하는 교사들을 우대하기 위한 방안”이라며 “인사의 객관·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전문직 응시 자격은 재직 기간 중 8년 이상 담임, 부장경력자와 이 가운데 5년 이상 담임 경력이 있어야 응시할 수 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청소년 20일부터 키스방 출입 금지

유사 성행위 업소 규제 강화

‘키스방’과 ‘대탈방’, 퇴폐 마사지업소, 성인PC방 등 유사 성행위를 제공하는 업소들에 청소년 출입과 고용이 법적으로 금지된다. 이에 따라 이들 업소에 청소년을 출입시키거나 고용하면 형사처벌과 행정처분 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여성가족부는 청소년보호법의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 규정이 변경 성행위 업소의 형태를 구체적으로 포함시키는 내용을 최근 고시했다고

6일 밝혔다.

법령으로 규제하는 영업형태는 밀실이나 밀폐된 공간에 화장실, 퇴폐적 안마, 나체쇼 등 신체적 접촉 또는 성 관련 신체 부위를 노출하거나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가 이뤄질 우려가 있는 영업 등이다.

오는 20일부터 효력을 내는 이번 법령에 따라 이들 업소가 청소년을 고용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청소년을 출입시키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연환뉴스

성화대, 밀린 월급 지급

교수 월급으로 13만여원을 지급해 빚을 산 강진 성화대학이 밀린 월급을 지급했다.

6일 성화대에 따르면 대학은 전날 밤 전 교직원들의 계좌로 지난달 지급하지 못한 월급을 입금했다. 자금의 출처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성화대는 지난달 17일 교직원에게 월급 13만6000여원을 일괄 지급해 파문이 일자 같은 달 23일 설립자의 차입금으로 나머지를 주겠다고 약속하고도 지급하지 않았다. 미지급 액수는 2억5000여만원이라고 대학 측은 밝혔다.

성화대 관계자는 “이번 주까지 진행될 교육과학기술부 감사 결과에 따라 대학 정상화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중부취재본부=남철희기자 chou@kwangju.co.kr

전복구이 전문점

전복장터

양식장 직영도·소매
할인복 전국택배 가능합니다.
모든 메뉴 포장됩니다.
각종모임 환영, 룸 9실, 대형주차장 완비

전복구이, 전복스팀찜, 전복우어찜

전복장터를 찾아주시는 고객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청정해역 완도바다에서 직영 양식장을 운영하여 매일 싱싱한 전복을 고객님들께 올릴 수 있음을 무한한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고객님 한분한분이 최상의 만족을 느낄때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일곡지구 연초제조창, 롯데참성, 코카콜라, 현대제과

SK주유소, 한양아파트, 현대아파트, 금광아파트

전복장터 | 예약문의 062-576-8600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동 367-12

즉석 프리미엄 뷔페 아이엘리시아

특허청 서비스표등록 제41-0187289

아이부터 어른까지 3대가 만족하는 **즉석 프리미엄 뷔페 아이엘리시아!** 고객님의 소중한 추억과 맛있는 행복을 약속합니다.

대·소모임 가능한 500석 완비!
150석, 92석, 52석, 32석, 24석, 12석의 다양한 룸구성으로 쾌적하고 아늑하게 모시겠습니다.

평일	영업시간	성인 (중학생이상)	취학어린이 (초중학생)	미취학어린이 (5세-7세)	토·일 공휴일	영업시간	성인 (중학생이상)	취학어린이 (초중학생)	미취학어린이 (5세-7세)
LUNCH	11:30-15:30	25,000원	12,000원	8,000원	LUNCH	11:30-15:30	31,000원	18,000원	12,000원
DINNER	16:00-22:00	31,000원	18,000원	12,000원	DINNER	16:00-22:00	31,000원	18,000원	12,000원

★ 어린이 요금은 의료보험증 등을 지참하시어 할인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약문의 062)671-1199
유스퀘어 터미널 2층 CGV 옆